

2025년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국내 작품 수록된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5년 달력 사진전,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작품 선정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세계기상기구(WMO) 2025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보발재의 겨울(Winter in Danyang Bobaljae pass / 이상운 작(作))’이 12월 사진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해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올해는 ‘조기경보 격차 함께 줄이기(Closing the early warning gap together)’를 주제로 최종 14점(표지 2점과 월별 각 1점)을 선정했다.

12월 사진으로 선정된 ‘보발재의 겨울’은 극심한 기후변화 시대에 기상재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자연의 힘을 사진으로 잘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6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 사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되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기구 2025년 달력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기상재해의 위험을 알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라며, “세계기상기구 달력 사진전에는 기상청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출품작 중 그해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응모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세계기상기구(WMO) 2025년 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 국내 작품
2. 세계기상기구(WMO) 2025년 달력 사진 공모전 선정작(14점)
3. 세계기상기구(WMO) 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나라 작품 선정 이력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마승완 (042-481-7320)
		담당자	사무관	박익태 (042-481-7323)
<공동>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김희철 (02-2181-0352)
		담당자	사무관	김승민 (02-2181-03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2월 사진으로 선정된 '보밭재의 겨울(이상운 作, 촬영일시: 2024.01.10.10:11, 충청북도 단양군)'

연도	사진	작품명(작가명)	비고
2020		돌탑과 햇무리 (신규호 作)	표지
		흑한의 아침을 열다 (오권열 作)	2월
2021		대청호의 고드름 (윤석헌 作)	3월
2022		안개도시 (방춘성 作)	10월

연도	사진	작품명(작가명)	비고
2023		<p>격랑의 바다 (박흥순 作)</p>	10월
2024		<p>태풍의 흔적 (조은옥 作)</p>	4월
		<p>K-Bus (윤성진 作)</p>	11월